

## 울산시태권도협회장, 시장상 · 체육회장상 수상

제103회 전국체전서 금 10개 · 총득점 2천349점 종합우승

기사입력시간 : 2022/12/26 [19:35:00]

허중학 기자



▲ 26일 중구 남외동 울산시티컨벤션에서 개최한 2022년 체육상 시상식 및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시상식에서 김화영 울산시태권도협회장이 울산시장상을 받았다. © 울산광역매일

울산시는 26일 중구 남외동 울산시티컨벤션에서 2022년 체육상 시상식 및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.

시에 따르면 제103회 전국체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울산시는 육상과 수영 등 45개 종목에 선수 879명과 임원·지도자 452명 등 총 1천331명을 파견했다.

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67개, 은메달 44개, 동메달 68개 등 총 179개의 메달을 획득해 총득점 3만4천765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해 종합 10위에 올랐다.

이날 시상식에서 김화영 울산시태권도협회장이 울산시장상을 받았다.

또 울산시체육회장 공로패와 종합 입상단체 우승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.

울산시태권도협회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0개, 은메달 6개, 동메달 7개 등 총 23개 획득했고 총득점 2천 349점을 얻어 2위를 차지한 서울(금 10개, 은 1개, 동 9개)보다 총득점(1천725점)을 624점 앞서면서 역대 전국 최고점수로 종합우승(득점·메달)을 차지했다.

김화영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"이번 전국체전에서 득점 및 메달 종합우승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와 선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남다른 각오로 임해 주어 대표로 이 상을 받는 것 같다"고 말했다. 허종학 기자